

8일째 이어진 폭염특보...온열질환자 속출

열대야도 10일 넘게 이어져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54명 바다도 펄펄 고수온 주의보 서남해 양식어민들 노심초사

광주·전남이 펄펄 끓고 있다. 폭염특보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벌써 10일을 넘겼다. 폭폭 찌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잇따르고 있으며 폭염이 계속되는데 따라 농·수·축산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낮엔 기마술 더위, 밤엔 열대야** 폭염특보는 지난 11일부터 8일째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 14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와 경보 등 폭염 특보가 지속하고 있다.

18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광양 35.8도, 순천 35.7도, 곡성·담양 35.3도, 구례 35도, 광주 34.6도 등 32~35도 분포를 보이는 등 흑산도와 홍도, 거문도 초도 등을 제외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19일도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폭폭 찌는 찜뽕 더위는 이번 주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날까지 2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 광주도 지난 16일까지 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여수시 한 낱에서 90대 남성이 더위에 실신했고, 광주에선

지난 14일 오후 1시~4시 사이 실의 활동을 하던 60대 여성과 40대 남성·20대 남성 등 3명이 탈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광주·전남에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도 1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안 수온도 올라** 서남해 연안 수온도 오르고 있다.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경우 자칫 양식어류 폐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적조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어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장, 고수

온 주의보가 내려진 완도와 함평·무안지역 어민들은 초긴장 상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득량만을 포함한 완도 내만에는 17일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수심이 낮은 내만에는 양식장이 밀집해 있어 고수온 피해에 특히 취약하다. 해수부는 이들 지역의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무안군 매부리·도리포를 잇는 함평만에는 지난 14일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해수부는 올해는 긴 장마에 따라 내만

과 연안의 표층 해수 염분이 평년보다 낮아져 수온이 높아지기 쉬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년에 비해 강한 세력을 유지한 대마난류가 여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고수온 특보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양식 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액화산소공급, 저층 해수 공급 장치 등을 활용한 양식장 관리 요령 지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도로에서 동구청이 운영하는 살수차가 물을 뿌려 도로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선체 목포 고하도에 영구 보존된다

해수부 유족 등과 협의 확정

세월호 선체(사진)가 목포 고하도 신항 배후단에 영구 보존된다.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해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상징으로 삼자는 목소리에 탄력이 기대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은 이날 초 내부 회의를 통해 목포 고하도 신항 배후단지를 최종 거처 장소로 확정했다.

추진단 측은 세월호 유족, 목포시 등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관계 부처와 의견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하도 신항 배후단지에 2022년까지 전시,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복합관과 희생자들을 기억할 추모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용역을 실시해 세월호를 현재 목포 신항에서

목포 고하도 신항 배후단지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복합관과 추모관 건립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하도 신항 배후단지로 이송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는 2027년 최종 거처를 목표로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면 2027년에는 거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2017년 인양된 후 같은 해 3월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3년 5개월간 신항에 임시 거처

돼 왔다. 이후 세월호 사고 원인과 향후 관리 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선조위)가 출범했지만 2018년 8월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t@

광주 남구, 대입 설명회 '비대면 영상 서비스'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남구는 18일 "오는 22일부터 오전 0시부터 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동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대학 입시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이 한결 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학년도 수능 관련 자료가 필요한 수험생 및 학부모 등은 오는 22일 오전 0시 이후부터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재생해 가며 들을 수 있다.

남구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김창목 대표 강사를 초빙해 강의 모습을 동영상에 담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송원대,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11% 현금 지급

송원대학교가 등록금 감면에 동참했다. 송원대는 2020년 1학기 남부 등록금의 11%를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송원대는 18일 총학생회와 함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장학금 대상은 1학기 등록금을 납

부한 전체 학생으로, 2학기 추석 전에 학생 개인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송원대 최수태 총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함께 고민해준 총학생회에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지스트, 안구건조증 광치료 가능성 제시

의생명공학과 정의현 교수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정의현 교수팀이 근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해 손상된 삼차신경절세포의 성장 촉진 및 말초신경계 재생을 위한 비침습적 광바이오효과를 기반으로 한 광치료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라식이나 라세 수술을 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각막절제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구건조증 발병률도 급증하는 추세다. 라식 수술은 각막을 절개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서 회복 과정에서 각막의 신경세포가 충분히 재생되지 않을 수 있고,

외부환경에 반응하는 역할을 하는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해 안구건조증 발병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연구팀은 안구건조증의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삼차신경절세포의 손상을 근적외선 레이저를 통해 재생을 유도하고, 세포의 활성도 측정 분석법을 통해 치료 효과를 연구했다.

정의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빛을 이용해 손상된 말초신경계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향후에는 각막절제 수술로 인한 안구건조증 치료와 말초신경계 손상에 기인한 만성통증 치료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식 바꾼다

조달청 계약 상한 5천만원으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없애

전남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관급 자재 납품 비리와 관련 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달청 구매 방식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조달청 3차 단가 계약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상한액(중소기업 제품 기준)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조달청 3차 단가 계약이란 구매기관이 가격·품질 등의 평가를 거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물품 중 조달청 소평물(나라장터)을 통해 임의로 지정해 구매하는 것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도 교육청은 또 5000만원 초과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MAS)을 통하기로 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이란 구매기관이 조달청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제품 간의 경쟁(가격·품질관리 등 8개 평가항목 중 하나를 선택)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 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조달청 구매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2000만원 이하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9월 1일부터는 수의계약을 없애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과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